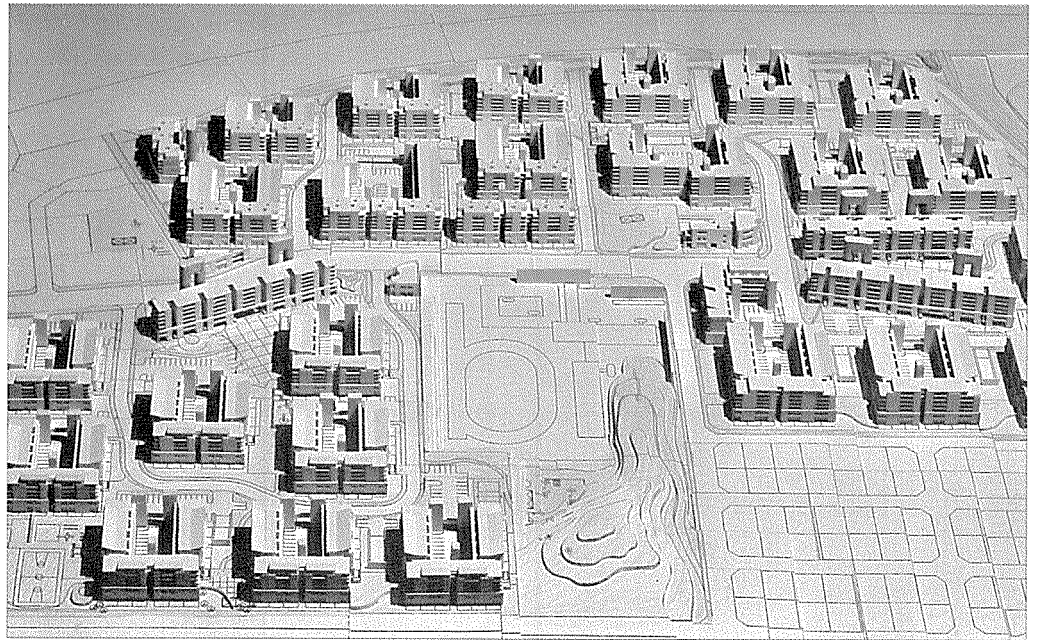


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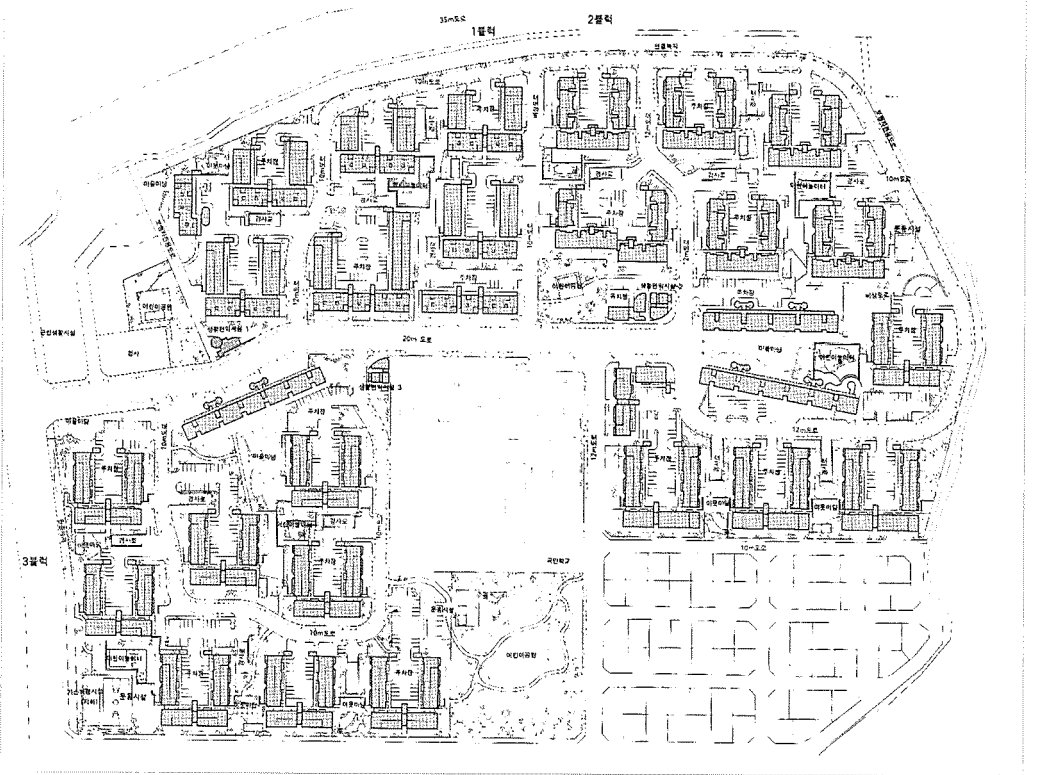
우원건축(조성룡+전은배)

대지면적 / 131,906.00㎡
 연면적 / 229,602.78㎡
 간폐율 / 25.55%
 용적률 / 138.1%
 지상연면적 / 182,310.30㎡
 건설호수 / 2,393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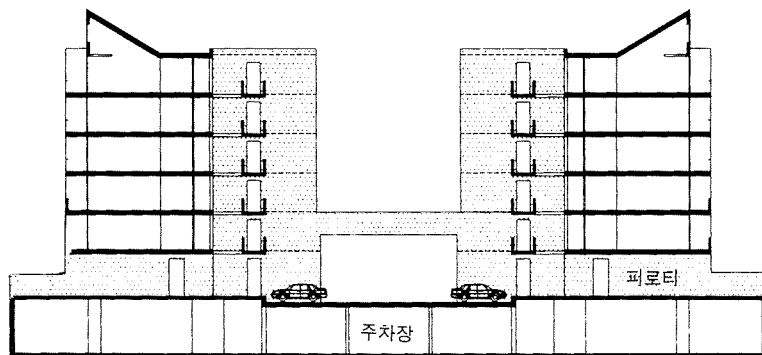
- 1블럭 413세대(25평형)
- 2블럭 1,168세대(18평형)
586세대(13평형)
582세대(15평형)
- 3블럭 812세대(15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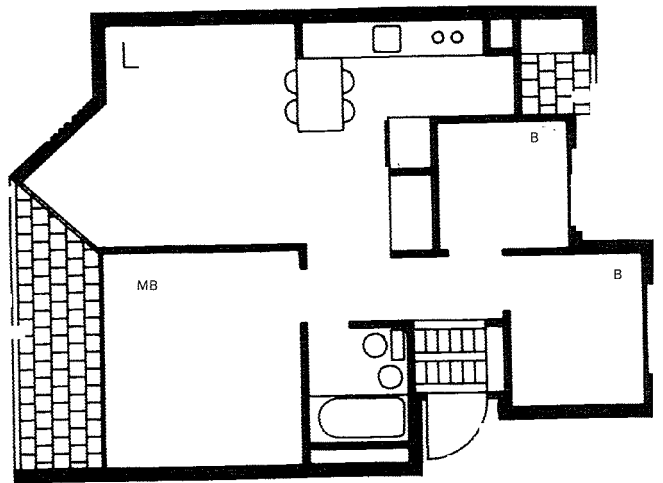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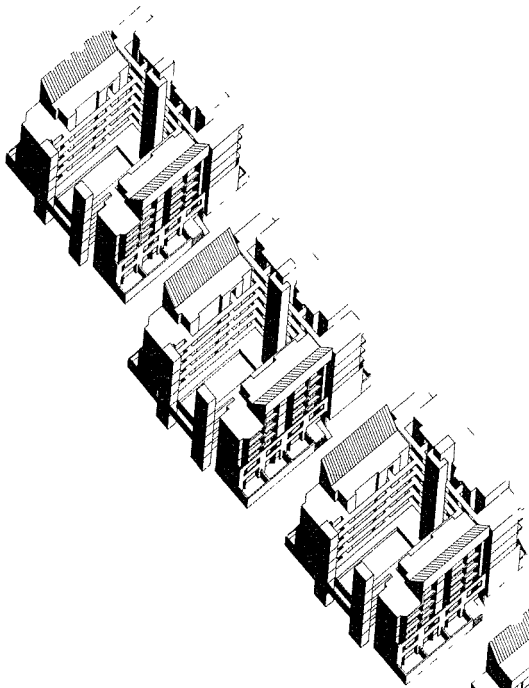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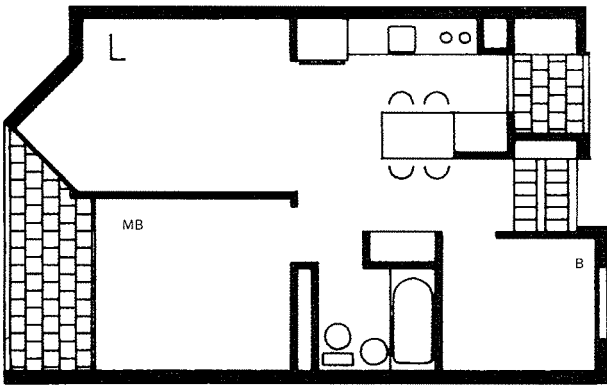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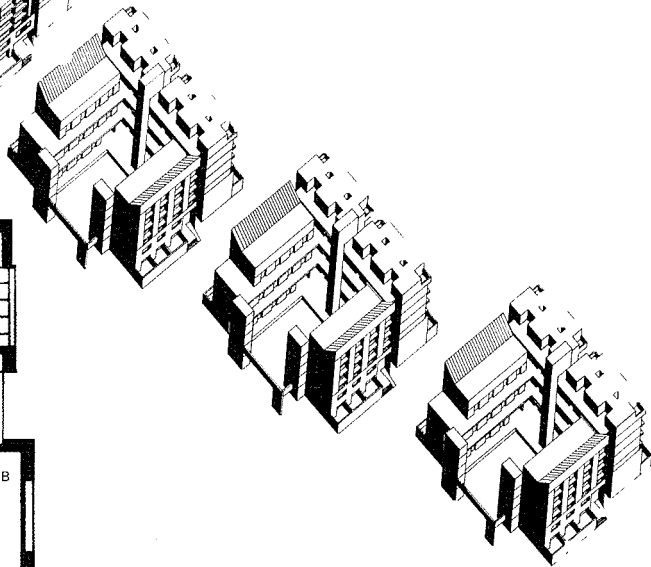
종합계획도



단면도



18b동-서향형



15b동-서향형

공중통로와 생활공간

주거용의 가운데 부분인 주차장과 세대 단위 사이는 벽을 높여 영역을 구분하고 식재한다. 2층이상의 단위 세대를 연결하는 복도는 벽면에서 떨어져 있고 그 사이는 비워져 있다. 주민은 자기층만이 아니라 아래, 위 3개층과 관계를 갖게 되므로 폐쇄된 계단식보다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

복도를 벽면에서 분리하여 공중통로(skywalk)를 만들면 우선 각 세대 현관근처에 여유가 생기고 복도쪽 방이나 발코니가 생활공간으로서 효율이 높아지며 통풍이나 채광면에서 유리하게되어 생활의 방향이 양면형(兩面型)이 된다. 이 양면 개방형에서 이웃 주민과의 커뮤니티가 가장 잘 살인다는 일본의 주민조사보고가 있다. 이 통로에서는 아래 윗층의 상태를 알 수 있게되어 반달리즘이나 외부인의 나쁜 행동도 미리 억제

할 수 있다.

복도형 커뮤니티의 활성화

최근의 경향은 복도식보다 계단식을 더 선호하는 쪽이다. 계단식에 비하여 공용면적비가 높고 복도와 거기에 면한 방의 효율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 그러나 계단식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층이면 몰라도 중, 저층에서는 승강기대수가 늘어나고 운행 소음의 억제도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복도식도 그 형식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복도의 디자인이나 공간의 설정에 문제가 많아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개방적이고 여유가 생겨 공동주택의 커뮤니티를 살리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제주도는 중부지방의 기후에 비하여 온난다습하며 삶의 방식에서도 육지사람들과 많이 다르다. 바람과

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다. 철에 따라 바람부는 방향을 검토해보면 잘 알 수 있듯이 겨울과 여름의 바람은 서로 성질이 다르다. 이 점을 잘 이용하여 찬 바람은 막고 시원한 바람은 끌어 들인다면 오히려 제주도에서 생활하기에 별 불편 없는 생활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활공간으로서의 중간영역

주거환경은 일반적으로 공적(public)인 사회생활 장소와 사적(private)인 사회생활장소로 나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프라이버시와 영역에 대한 구분과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양극적인 구조로는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없다.

반 공적(sami-public), 반 사적(semi-private)영역과 같은 중간영역을 만들면 개인의 생활에서 사회생활에 이르는 각 레벨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회사이의 관계를 이어주게 된다.

인간을 위한 주거환경의 전기(轉期)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생활영역 단위, 중심과 외곽, 동적 영역과 정적 영역, 공유영역과 그 체계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의 전개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으로서의 공간의 효율성과 변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세대 단위 공간

블록별로 이미 평형배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런 계층의 주민이 함께 모여 살며 이루는 삶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